“미술 한류는 불교미술의 미래와 직결”



2021년 전국 국공립미술관장 회의에 참석한 윤범모 관장(우측 네 번째).



1980년 중반 뉴욕 백남준스튜디오에서 백남준 등과 함께 기념촬영. 좌측 두 번째 윤범모 관장.

‘윤범모 관장’ C1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 채색전통을 이야기하려면 탱화를 비롯한 많은 불교미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화가 만들어내고 써왔던 그 채색전통의 보루는 사찰입니다. 사찰에는 화승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채색전통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신 성파 스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져오는 전통과 새로운 창조를 쉼 없이 모색하고 있는 성파 스님은 전통 미술의 재료와 기법을 다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채색화 특별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붓다로드’서 한국불교미술을 다시 보다

“길 위에서 길이 어디냐고 묻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 길이 어디예요? 길 위에서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행장을 꾸렸다. 그동안 참 많이도 걸었다. 많은 곳을 다녔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방황이었다. 방랑이나 산책과 같은 단어는 하나의 사치였다. 아, 길은 어디에 있는가.”

윤 관장은 2017년 本紙에 ‘윤범모의 불도(佛道)기행’을 연재한 바 있다. 그는 1988년 실크로드와 인도의 붓다로드를 걸으며 ‘깨달음’과 ‘아름다움’에 대해 깊어간다. 부처와 미술에 대해 깊어간다. 연재는 윤 관장이 길 위에서 그 두 가지에 깊어가는 이야기다.

그는 부처의 흔적을 지닌 길, ‘붓다로드’를 걸으며 우리미술을 다시 보게 된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는 한국불상을 다시 보게 된다.

“불상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도 속인의 눈으로 ‘최고의 불상’ 단 하나만을 골라보라 한다면, 나는 토함산 석굴암을 꼽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가 침몰되어 단 하나의 아이템을 골라야 한다면 나는 토함산 석굴암을 건질 것이다.”

그는 불상을 보러 다니면서 많은 의문들을 품게 됐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깨달은 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불상이 깨달은 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그는 불상들을 바라보다 또 다시 생각한다.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많고도 많은 지구상의 모든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불상을 만든 이들을 불모(佛母)라고 부른데, 그들은 모두 깨달았단 말인가. 그는 이어지는 자문을 발자국삼아 걷고 또 걸었다.

“불교 전래의 길, 아니 불도, 그 깨달음의 길, 노상에서 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나의 화두는 깨달음과 아름다움이 되었다. 미술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기에는 무언가 아쉽게 하는, 물론 절에서는 미술 역할을 ‘장엄’이라고 한다. 나는 이 ‘장엄’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사찰은 불교미술관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절을 세울 때,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찰은 미술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찰 순례는 미술관 탐방의 길이었다. 바로 깨달음의 길이면서 아름다움의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윤 관장은 하나의 길에서 두 개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방황’이었다고 했다. 그 ‘방황’의 시작은 스무 살 청년 윤범모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대산에서 다시 태어난 스무 살 윤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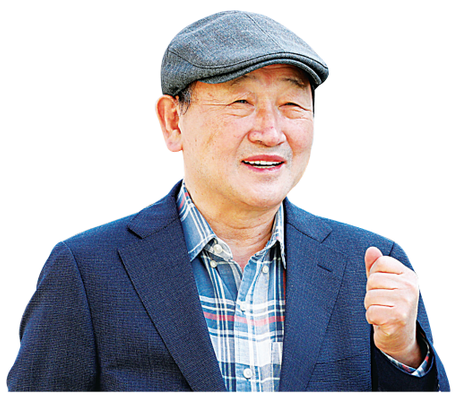
“무슨 인연이었을까. 우연히 나는 어떤 장소로 잠입해 들어갔다. 거기가 바로 강원도 오대산이었다. 오대산, 그렇다! 오대산. 거기서 나는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그것은 죽음이어도 무관했고 새로운 탄생이어도 무관했다. 무엇인가의 변화가 절실했다.”

삶의 무게는 어느 날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일까. 갑자기 불어난 물살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스무 살 윤범모의 삶은 스무 살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스무 살의 윤범모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패’라고 불렀다. 그런 그를 끌어당긴 것은 오대산이라는 거대한 숲이었다. 그리고 그 숲은 불문의 내력이 가득한 곳이었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인연’ 뿐이었다. 죽음과 새로운 탄생 사이에 섰던 스무 살 윤범모는 다시 살기로 했다.

청년기 방황 때 오대산 찾아 삶 전환
‘깨달음’·‘아름다움’ 무엇인가 화두로

1988년 실크로드, 붓다로드에서 만행
붓다로드서 한국불미술 다시 보게 돼

本紙서 ‘윤범모의 불도기행’으로 연재
묻혀진 불모인 김복진 발굴한 업적도



“강원도 산자락에서 우두커니 한 철을 보냈다. 그리고 하산을 했다. 그냥 세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부끄러움만 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열병과 같았던 통과의례는 퇴색되었다. 오대산은 새로운 세월을 안겨 해주었다. 어쩔거나 스무 살 언저리의 오대산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다.”

청년 윤범모는 한 철 머문 오대산에서 새로운 윤범모로 깨어난다. 자신이 한 철 머문 곳이 부처들의 산이었다는 사실, 적멸보궁, 월정사, 탄허, 자장법사 이야기…. 오대산에서의 이야기를 묶어낸 저서 〈아하! 절에 불상이 없네〉에서 그는 “오대산. 상처. 나의 비밀. 나의 그리움”이라고 적고 있다.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길이었던 붓다로드, 어찌 보면 그 만행의 불씨는 오대산에서 채화된 것이 아닐까. 오대산이 없었다면 그 길이 ‘깨달음’과 ‘아름다움’이라는 화두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때, 아름다움에 대해 깊어질 수 있었던 윤범모는 훗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된다.

불상에 근대 옷 입힌 불모, 김복진

한국불교미술사에서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역사가 없었던 것인지, 역사는 있었지만 묻혀버린 건지 알 수 없다. 하여튼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는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국불교미술의 근현대사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그 기근 속에서도 빛나는 기록이 있다.

윤 관장의 많은 이력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술평론가’이다. 윤 관장은 1982년 동아일본 신춘문예에 미술평론가로 등단한 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미술평론가로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근현대 예술가 발굴과 재평가일 것이다. 윤 관장은 나혜석과 김복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미술사에서 누락됐던 두 작가를 찾아냈다. 특히 김복진의 연구는 좀 더 주목된다.

약 30년 동안 김복진의 뒤를 쫓았던 윤 관장은 2010년 펴낸 〈김복진 연구(동국대 출판부)〉을 통해 예산 정혜사 관음보살상과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과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미완성)이 김복진의 작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복진(1901~1940)은 일제강점기에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선구적인 작가로 평가된다. 그는 일반 조소작가와는 달리 전통적 불상예술에도 일가를 이루어 근대기 불상조각의 새로운 양식을 선보인 근현대 불모(佛母)라고 할 수 있다.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복진은 짧은 생에서 5년 반 동안의 옥중생활까지 하면서도 10년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근대기 조소작가로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윤 관장은 책에서 “일제강점기에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김복진이 미륵상을 주로 조소하면서 신라불상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근대미술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김복진은 조소예술계에서 ‘정관파’를 형성할 만큼 한국미술사에 선명한 업적을 남겼지만 전해지는 작품이 전혀 없어 그의 존재와 가치를 알 수 없었다. 사라졌던 불모 김복진의 발굴은 미술사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한국불교미술의 역사를 넓힌 불사라고도 할 수 있다. 불모를 찾아내는 일 역시 또 다른 불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윤범모, 그가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면 지금의 이름이 있기까지 많은 소임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소임과 소임 사이사이에는 적지 않은 불사의 업적이 있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소임에 더욱 커다란 불사를 기대해본다.



새단장한 연등사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비도량

사단법인 불교정중종 망이산성 안성 연등사

주지 도 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장 도심

총동문회 사무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
전화 031)674-5765 | 팩스 031)674-5769 | 핸드폰 010-3714-9351